

# 사라진 풍경들, 사라질 풍경들

## 백사마을에 서다

Lost cityscape, to be lost cityscape

정익현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비가 오락가락하는 초여름 오후, 오래전부터 별렀던 백사마을을 처음 방문했다. 마스크를 통해서 짐작했던 대로 마을의 건물은 비록 낡았지만 골목길은 정겨웠다. 경사진 골목길을 따라 마을 뒤 꼭대기까지 올라가니 초록 비 맞은 불암산이 구름에 싸인 채 그림처럼 다가온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의 백사마을은 1967년 도심 재개발에 의해 청계천, 영등포 등지의 주민들이 강제철거를 당하여 이주해 올 당시의 지번인 중계리 산 104번지에서 유래된 것이라 한다. 이곳은 1971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였다가 2008년 해제되었다. 그 뒤 2009년 5월 아파트 위주로 전면 재개발하기로 했다가 사회 각층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제기해 마을 전체 구역 18만 9천㎡ 중 23%인 4만 2천㎡를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으로 설정해 주거지 원형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1,720가구의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저층주택 354채는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도 한편,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심정이다.

우선 첫째, 계획안을 보면 저지대에 저층 보존주택이, 고지대에 고층 아파트 군이 새로 건립됨으로써 생기는 경관상의 문제와 패션(Fashion)이 그러하듯 권력이 된 고층 아파트가 저지대 주민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백사마을 정상부에서 서쪽을 바라보면 멀리 고층 아파트가 눈 아래 보일 정도로 높은 이 자리에 고층 아파트가 세워진다. 몇몇 아파트 주민의 전망이야 좋겠지만 능선이 파괴되어 국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바로 옆 해발 508m 불암산을 압박하여 이 지역 경관을 해칠 것은 뻔하다.

둘째는 정형화되지 않은 각각의 터에 무질서한 듯 빼곡히 자리 잡은 집과 마당으로 이어진, 막힌 듯 막히지 않은 골목길의 편안함을 어떤 식으로 보전하면서 거주민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셋째는 역사교육장, 영화촬영지 등 이곳을 관광명소화 한다는 발상이다. 개인의 고유한 삶이 누군가의 볼거리가 될 수는 없다. 저층 보전구역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주인이다. 벽화마을로 유명한 경남 통영의 '동피랑 마을'에 방문객이 몰려들어 사진기 셔터를 시도 때도 없이 눌러 대고 있다. 재개발로 사라질 뻔한 이 마을을 벽화가 살렸지만 오죽하면 골목길 벽에 '제발 조용히 다니세요, 사람 사는 곳입니다.'라고 써 붙였을까.

백사마을을 연민의 눈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으로, 조금 덜 풍요로운 뿐 이곳의 주민이나 어린 시절 이곳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 떠난 출향민도 이곳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마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잣대로 그들의 삶을 재단하려는 마음이라.

삶에 지친 사람들이 세월을 건디며 살아온 흔적들이 묻어나는 이 골목길을 걸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치유(Healing) 된다면, 이곳을 방문한 고향사람이 마당 한 구석, 골목 어느 모퉁이에서 잃어버린 나의 편린(片鱗)들을 발견 한다면, 저층 보전구역은 성공한 것이라 하겠다.

'우리 형의 얼굴은 누구를 닮았던가요.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형을 보곤 했지요. 오늘 형이 그리워서 어디 가서 볼까 하다, 옷매무새 바로 하고는 시냇물에 비춰봅니다.(我兄顏髮曾誰似, 每憶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上.)' 연암 박지원이 형의 죽음을 접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지은 시이다. 우리는 고향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

사라진 풍경들-동대문 운동장이 그랬고 옥수동이, 뚝섬이, 골목길이 그랬다. 백사마을 마루에서 사라질 풍경 하나를 바라보며 불암산 옆에 다소곳한 풍경이 될 백사마을을 그려 본다. 부서지는 햇살아래 어린아이의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골목 구석구석을 굴러다니는, 권력이 아니라 풍경이 된 건물을... ㉮

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예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북도건축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건축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